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이동(II) : 이동 가구 특성과 선택성*

최은영** · 구동회*** · 조순기****

Patterns of Migration in the Busan Metropolitan Area(II) : Household Characteristics and Migration Selectivity*

Choi, Eunyoung** · Koo, Donghoe*** · Joe, Soonkee****

요약 : 부산 대도시권 인구이동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동 가구의 특성과 부산 대도시권 인구이동의 선택성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에서 유출되는 가구의 가구주는 25~34세 연령대의 비율이 가장 높다. 비이동 가구에 비해 이동 가구는 가구주의 학력 수준이 높고, 1인 가구 비율이 높으며, 자가 거주 비율이 낮다. 특히 부산에서 수도권으로 진출하는 가구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다. 둘째, 연령과 학력에 따른 인구이동의 선택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부산은 모든 연령대에서 인구가 유출되는 가운데, 10대와 20대의 진출 초과 규모가 크다. 비이동자에 비해 이동자는 고학력자 비율이 높으며, 특히 부산에서 수도권으로 진출하는 인구의 고학력자 비율이 높다. 부산의 4개 사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08년 진학 현황을 살펴본 결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대부분 서울로 진학하였다. 부산은 인구가 과도하게 유출되고 있는 양적 문제와 함께 두뇌유출이라는 질적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다.

주요어 : 인구이동, 인구이동의 선택성, 학령인구, 두뇌유출

Abstract : To grasp the migration characteristics in the Busan Metropolitan Area (BMA), this study analyzed household characteristics and migration selectivity. The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young (especially 25 to 34 years of age) and single person households have greater propensity to migrate out from BMA, and their home ownership rate is low. These trends are much stronger in households that migrate out towards the Seoul Metropolitan Area from Busan. Second, age and educational selectivity of migration is evident. The characteristics of movers are quite different from those of stayers at Busan. Young people are more likely to migrate out of Busan, and higher levels of education are deeply associated with higher mobility. Through analyzing four high schools in Busan, it is acknowledged that most honor students entered 4-year universities in Seoul. The outflow of highly educated young people may induce the brain drain. Busan is undergoing both population decline and the problems caused by the brain drain.

Key Words : migration, migration selectivity, school-age population, brain drain

1. 서론

인구이동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기반을 둔 이동 가구와 인구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구이동은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더 쉽게 이동하는 선택적(selective) 과정을 보이기 때문이다(Peters and Larkin, 2002; 이희연, 2003). 인구이동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설문지나 면담조사를 통해 이동 원인이나 이동 의향을 묻는 것이다. 그러나 인

구이동은 어느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방법을 통해서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인구이동의 패턴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해 보면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일관된 결과가 지속적으로 관찰되는데(최은영·조대현, 2005), 이는 인구이동이 개인과 가구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 사회와 지역이 개인의 인구이동에 구조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인구이동의 원인 분석을 위해서는 통

* 이 논문은 부산발전연구원의 보고서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이동 특성 및 원인 분석(2008)”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통계청 통계개발원 사무관(Deputy Director,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choiey@korea.kr)

***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donghoe@pusan.ac.kr)

**** 통계청 사무관(Deputy Director, Statistics Korea)(skjoe@korea.kr)

계 자료를 이용한 객관적이고 구조적인 인구가동 특성을 먼저 분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산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인구와 부산에서 김해나 양산으로 이동하는 인구의 이동 원인은 다를 수 있으며, 20대와 30대 인구의 이동 원인은 다를 수 있다.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인구가동의 원인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계 자료의 분석 결과에 기반을 둔 합리적 추론을 통해 특정 지역, 특정 인구의 구체적인 이동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단일한 회귀식이나 모형을 통해 인구가동 원인을 분석한 기존 연구와는 구별된다.

이동하려는 의사결정과 목적지의 선택은 성별·연령별·교육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이 중에서도 연령은 인구가동의 차이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Clarke, 1965; Peters and Larkin, 2002; Rogers et al., 2002). 또한 최근 인적 자본에 대한 강조와 함께 두뇌유출(brain drain)에 대한 연구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임정덕·장영재, 1997; Hansen, 2003; 권상철, 2003), 인구가동에 의한 두뇌유출은 지역간 격차의 주요 원인이 된다. 저개발 지역에서 개발된 지역으로 이동하는 인구 중에는 고등교육을 받았거나, 고등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교육 정도에 따른 인구가동과 엘리트 집단의 이동성(Hornby and Melvyn, 1980; Savage, 1988; Foulkes and Newbold, 2000; US Census Bureau, 2003)은 인구가동 연구의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제주도의 전입·전출 인구의 속성을 비교한 권상철(2003)에 의하면, 인적 자원은 풍족한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이동하기보다는 그 역으로 이동한다. 이는 수도권으로의 정치·경제 기능의 집중과 이에 따른 취업·교육기회로 인해, 젊고 높은 교육수준을 가진 개인들이 이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가동 분석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부산 대도시권의 전입·전출 인구의 속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어떤 특성의 가구와 인구가 어디에서 어디로 어떠한 규모로 이동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부산·울산·경남을 포함

하는 부산 대도시권 인구가동의 특성과 원인을 규명함에 있어 필수적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양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인구가동으로 인한 인구문제가 인구 감소와 거의 등치되어 왔으나, 이동 인구의 질적인 측면에 대한 분석도 또한 중요하다. 유입·유출 인구의 특성은 이동 인구의 규모 못지않게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부산의 전출입 인구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현상 파악을 넘어 부산의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 및 전략과도 연결될 수 있다(옥양련·류영달, 1994).

이 연구에서는 이동 가구의 특성과 인구가동의 선택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부산 대도시권 인구가동의 특성과 원인을 밝히고, 인구가동에 의한 두뇌유출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 대도시권의 이동 가구 특성은 어떠한가? 이를 위하여 가구주 특성, 가구 구성, 주택점유형태를 중심으로 이동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둘째,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가동은 어떠한 선택성을 보이는가? 이를 위하여 부산 대도시권 이동 인구는 연령과 학력에 따라 어떠한 선택성을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주요 자료는 통계청의 인구가동 통계(2007년),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자료이다. 인구가동 연구에서 대규모 표본 조사인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및 인구가동 통계의 마이크로데이터(micro data)는 그 활용 가능성이 크다. 인구가동은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 조사 항목으로 2005년에는 5년 전 거주지 문항이 조사되었는데, 인구가동통계에서는 얻을 수 없는 인구와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변수가 풍부하다. 연령별 이동지수 등의 양적 분석에서는 주로 인구가동통계를 사용하였으며, 이동 가구의 특성 분석에는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자료를 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나 가구 승수가 적용되지 않은 10% 표본 원자료를 사용하였으므로, 숫자의 절댓값 자체는 큰 의미가 없지만 대규모 표본 조사의 특성상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에서 5년 전 거주지 또는 조사시점 거주지가 부산 대도시권이거나 수

표 1. 5년 전 거주지와 조사시점 거주지에 따른 유형 구분

| 구 분 | | 5년 전 거주지 | 조사시점 거주지 | 유 형 |
|-----|--------|----------|----------|-----------------------|
| 비이동 | 부산→부산 | 부산 | 부산 | 부산에 계속 거주한 인구와 가구 |
| 이동 | 부산→경남 | 경남 | 부산 | 경남에서 부산으로 이동한 인구와 가구 |
| | | 부산 | 경남 | 부산에서 경남으로 이동한 인구와 가구 |
| | 부산→울산 | 울산 | 부산 | 울산에서 부산으로 이동한 인구와 가구 |
| | | 부산 | 울산 | 부산에서 울산으로 이동한 인구와 가구 |
| | 부산→수도권 | 수도권 | 부산 | 수도권에서 부산으로 이동한 인구와 가구 |
| | | 부산 | 수도권 | 부산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인구와 가구 |

도권인 인구와 가구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표 1>에서와 같이 5년 전 거주지와 조사시점 거주지에 따라 인구와 가구를 7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부산에 계속 거주한 가구(비이동 가구)와 부산과 경남·울산 사이의 이동 가구, 부산과 수도권 사이의 이동 가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2. 이동 가구의 특성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에서 5년전 거주지 또는 조사시점 거주지가 부산 대도시권이거나 수도권인 가구수는 총 121,129가구이다(표 2). 이 가운데 비이동 가구는 103,939가구(85.8%)이며, 경남에서 부산으로는 3,109가구(2.6%), 부산에서 경남으로는 5,535가구(4.6%), 울산에서 부산으로는 621가구(0.5%), 부산에서 울산으로는 1,079가구(0.9%), 수도권에서 부산으로는 1,807가구(1.5%), 부산에서 수도권으로는 5,039가구(4.2%)가 이동하였다.

1) 가구주 특성

지역별 전입·전출 가구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가구주의 연령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부산으로 전입한 가구주의 연령 분포를 보면, 경남과 울산, 수도권 모두에서 35~44세의 가구주가 가장 많다. 반면 부산에서 전출한 가구주의 연령은 세 지역 모두 25~34세 비율이 높으며, 특히 수도권으로 전출한 가구주는 이 연령대의 비율이 45.4%로 매우 높다. 이 연령대의 가구주가 부산 계속 거주 가구주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2%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다. 경남에서 부산으로는 757명·부산에서 경남으로는 1,780명, 울산에서 부산으로는 151명·부산에서 울산으로는 488명, 수도권에서 부산으로는 586명·부산에서 수도권으로는 2,288명이 각각 이동하여 경남·울산·수도권 모두에 대해 부산의 순유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산의 전입·전출 가구주의 학력별

표 2. 가구주의 이동 유형과 연령(2005)

(단위: 명, %)

| 구 분 | 비이동 가구 | 부산→경남 | | 부산→울산 | | 부산→수도권 | |
|--------|----------------|--------------|--------------|------------|--------------|--------------|--------------|
| | | 경남→부산 | 부산→경남 | 울산→부산 | 부산→울산 | 수도권→부산 | 부산→수도권 |
| 0~24세 | 1,464 (1.4) | 671(21.6) | 254 (4.6) | 134 (21.6) | 45 (4.2) | 98 (5.4) | 894(17.7) |
| 25~34세 | 10,597(10.2) | 757(24.3) | 1,780(32.2) | 151 (24.3) | 488(45.2) | 586(32.4) | 2,288(45.4) |
| 35~44세 | 23,785(22.9) | 896(28.8) | 1,636(29.6) | 175 (28.2) | 282(26.1) | 639(35.4) | 983(19.5) |
| 45~54세 | 30,471(29.3) | 485(15.6) | 886(16.0) | 94 (15.1) | 127(11.8) | 304(16.8) | 518(10.3) |
| 55~64세 | 21,258(20.5) | 146 (4.7) | 546 (9.9) | 41 (6.6) | 63 (5.8) | 100 (5.5) | 200 (4.0) |
| 65세 이상 | 16,364(15.7) | 154 (5.0) | 433 (7.8) | 26 (4.2) | 74 (6.9) | 80 (4.4) | 156 (3.1) |
| 계 | 103,939(100.0) | 3,109(100.0) | 5,535(100.0) | 621(100.0) | 1,079(100.0) | 1,807(100.0) | 5,039(100.0) |

자료: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표 3. 가구주의 이동 유형과 학력(2005)

(단위: 명, %)

| 구 분 | 비이동 가구 | 부산↔경남 | | 부산↔울산 | | 부산↔수도권 | |
|-------|----------------|--------------|--------------|------------|--------------|--------------|--------------|
| | | 경남→부산 | 부산→경남 | 울산→부산 | 부산→울산 | 수도권→부산 | 부산→수도권 |
| 초졸 이하 | 18,836(18.1) | 198 (6.4) | 500 (9.0) | 40 (6.4) | 86 (8.0) | 93 (5.1) | 162 (3.2) |
| 중졸 | 15,961(15.4) | 203 (6.5) | 507 (9.2) | 34 (5.5) | 66 (6.1) | 81 (4.5) | 174 (3.5) |
| 고졸 | 48,488(46.7) | 1,848(59.4) | 3,110(56.2) | 370(59.6) | 577(53.5) | 768(42.5) | 2,314(45.9) |
| 대졸 이상 | 20,654(19.9) | 860(27.7) | 1,418(25.6) | 177(28.5) | 350(32.4) | 865(47.9) | 2,389(47.4) |
| 계 | 103,939(100.0) | 3,109(100.0) | 5,535(100.0) | 621(100.0) | 1,079(100.0) | 1,807(100.0) | 5,039(100.0) |

자료: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주: 졸업에는 수료를 포함하고 재학·휴학·중퇴는 하위 학력에 포함하였으며, 4년제 미만 대학은 고졸에 포함함.

표 4. 가구의 이동 유형과 가구원수(2005)

(단위: 가구, %)

| 구 분 | 비이동 가구 | 부산↔경남 | | 부산↔울산 | | 부산↔수도권 | |
|-------|----------------|--------------|--------------|------------|--------------|--------------|--------------|
| | | 경남→부산 | 부산→경남 | 울산→부산 | 부산→울산 | 수도권→부산 | 부산→수도권 |
| 1인 | 17,780(17.1) | 1,121(36.1) | 1,418(25.6) | 246(39.6) | 360(33.4) | 624(34.5) | 2,255(44.8) |
| 2인 | 23,247(22.4) | 633(20.4) | 1,363(24.6) | 134(21.6) | 256(23.7) | 365(20.2) | 1,127(22.4) |
| 3인 | 25,040(24.1) | 511(16.4) | 1,187(21.4) | 78(12.6) | 231(21.4) | 346(19.1) | 695(13.8) |
| 4인 | 28,288(27.2) | 635(20.4) | 1,182(21.4) | 124(20.0) | 176(16.3) | 365(20.2) | 670(13.3) |
| 5인 이상 | 9,584 (9.2) | 209 (6.7) | 385 (7.0) | 39 (6.3) | 56 (5.2) | 107 (5.9) | 292 (5.8) |
| 계 | 103,939(100.0) | 3,109(100.0) | 5,535(100.0) | 621(100.0) | 1,079(100.0) | 1,807(100.0) | 5,039(100.0) |

자료: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특성을 살펴보면(표 3), 고학력 가구주의 경우 수도권으로부터의 전입이 865명, 전출이 2,389명으로 절대 숫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고학력 가구주의 초과 전출은 경남과 울산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비이동 가구의 가구주와 이동 가구의 가구주 학력을 비교해 보면, 비이동 가구의 가구주는 대졸 이상 고학력 비율이 20% 미만이지만, 부산의 전입·전출 가구주의 학력은 이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특히, 부산과 수도권 사이의 이동 가구는 대졸 이상 가구주 비율이 50%에 가까운데, 이는 부산과 경남·울산 사이의 이동 가구의 대졸 이상 가구주 비율(20~30%)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2) 가구 구성

지역별 전입·전출 가구의 가구원수에 따른 규모별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 비이동 가구는 4인 가구 비율이 27.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3인 가구(24.1%)·2인 가구(22.4%)·1

인 가구(17.1%) 순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동 가구는 이동 지역에 상관없이 1인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데, 특히 수도권으로 전출하는 경우 1인 가구의 비율이 44.8%에 달하고 있다.

가구의 세대구성별 특성을 살펴보면(표 5), 이동 유형별로 구성 비율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비이동 가구는 부부+자녀로 이루어진 가구가 44.5%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경남·울산·수도권에서 부산으로 전입한 가구 가운데 부부+자녀로 이루어진 가구는 30% 내외이며, 1인 가구가 3개 지역 모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부산에서 경남으로 전출한 가구는 부부+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비율이 가장 높지만, 울산과 수도권으로 전출한 가구는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주택점유형태

가구의 주택점유형태에 따라라도 비이동 가구와 이동 가구 사이에는 차이가 나타났다(표 6). 비이동 가구는 자가 거주 비율이 59.7%로, 이동 가구

표 5. 가구의 이동 유형과 세대구성(2005)

(단위: 가구, %)

| 구 분 | 비이동 가구 | 부산↔경남 | | 부산↔울산 | | 부산↔수도권 | |
|--------|----------------|--------------|--------------|------------|--------------|--------------|--------------|
| | | 경남→부산 | 부산→경남 | 울산→부산 | 부산→울산 | 수도권→부산 | 부산→수도권 |
| 1인 가구 | 17,780(17.1) | 1,121(36.1) | 1,418(25.6) | 246(39.6) | 360(33.4) | 624(34.5) | 2,255(44.8) |
| 부부 | 14,061(13.5) | 260 (8.4) | 886(16.0) | 45 (7.2) | 165(15.3) | 190(10.5) | 464 (9.2) |
| 부부+자녀 | 46,201(44.5) | 965(31.0) | 2,040(36.9) | 174(28.0) | 353(32.7) | 588(32.5) | 1,083(21.5) |
| 편부부+자녀 | 11,887(11.4) | 243 (7.8) | 385 (7.0) | 51 (8.2) | 44 (4.1) | 163 (9.0) | 255 (5.1) |
| 3세대 이상 | 7,800 (7.5) | 111 (3.6) | 242 (4.4) | 24 (3.9) | 31 (2.9) | 60 (3.3) | 98 (1.9) |
| 기타 | 6,210 (6.0) | 409(13.2) | 564(10.2) | 81(13.0) | 126(11.7) | 182(10.1) | 884(17.5) |
| 계 | 103,939(100.0) | 3,109(100.0) | 5,535(100.0) | 621(100.0) | 1,079(100.0) | 1,807(100.0) | 5,039(100.0) |

자료: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표 6. 가구의 이동 유형과 주택점유형태(2005)

(단위: 가구, %)

| 구 분 | 비이동 가구 | 부산↔경남 | | 부산↔울산 | | 부산↔수도권 | |
|-----------|----------------|--------------|--------------|------------|--------------|--------------|--------------|
| | | 경남→부산 | 부산→경남 | 울산→부산 | 부산→울산 | 수도권→부산 | 부산→수도권 |
| 자기집 | 62,101(59.7) | 823(26.5) | 1,858(33.6) | 153(24.6) | 306(28.4) | 418(23.1) | 654(13.0) |
| 전세 | 18,670(18.0) | 839(27.0) | 1,184(21.4) | 150(24.2) | 274(25.4) | 608(33.6) | 2,049(40.7) |
| 보증금+월세 | 17,010(16.4) | 1,114(35.8) | 1,754(31.7) | 236(38.0) | 351(32.5) | 522(28.9) | 1,702(33.8) |
| 월세 또는 사글세 | 2,765 (2.7) | 135 (4.3) | 282 (5.1) | 44 (7.1) | 60 (5.6) | 88 (4.9) | 271 (5.4) |
| 무상 등 기타 | 3,393 (3.3) | 198 (6.4) | 457 (8.3) | 38 (6.1) | 88 (8.2) | 171 (9.5) | 363 (7.2) |
| 계 | 103,939(100.0) | 3,109(100.0) | 5,535(100.0) | 621(100.0) | 1,079(100.0) | 1,807(100.0) | 5,039(100.0) |

자료: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에 비해 자가 거주 비율이 높았다. 경남과 울산에서 부산으로 이동하는 가구에 비해 부산에서 경남과 울산으로 이동한 가구의 자가 거주 비율이 높으며, 보증금+월세 비율은 낮다. 이와 정반대로 수도권에서 부산으로 이동하는 가구에 비해 부산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가구의 자가 거주 비율은 낮으며, 보증금+월세 비율은 높다. 부산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가구의 자가 거주 비율은 13.0%로 현저하게 낮으며, 전세와 보증금+월세 비율이 각각 40.7%, 33.8%로 높다.

이동 가구의 특성을 주택점유형태별로 살펴보면, 비이동 가구는 이동 가구에 비해 자가 거주 비율이 높고(59.7%), 이동 가구 가운데 부산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가구의 자가 거주 비율이 특히 낮다(13.0%).

3. 인구이동의 선택성

1) 연령별 선택성

(1) 5세 간격 연령대별 선택성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자료의 전입·전출 인구의 연령 특성을 통해 지역간 인구이동의 연령별 선택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에서 5년전 거주지 또는 조사시점 거주지가 부산 대도시권이거나 수도권인 인구는 362,896명이다. 이 중 부산 계속 거주는 302,936명(83.5%)이며, 경남에서 부산으로는 12,301명(3.4%), 부산에서 경남으로는 18,102명(5.0%), 울산에서 부산으로는 2,932명(0.8%), 부산에서 울산으로는 4,223명(1.2%), 수도권에서 부산으로는 5,828명(1.6%), 부산에서 수도권으로는 16,574명(4.6%)이 이동하였다. 총이동은 부산·경남 30,403명, 부산·울산 7,155명, 부산·수도권 22,402명이며, 순이동은 부산·경남 -5,801명, 부산·울산 -1,291명, 부산·수도권 -10,746명으로 부산에서 수도권으로 유출 인구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인구의 이동 유형과 연령(2005)

(단위: 명)

| 구분 | 비이동 인구 | 부산↔경남 | | | | 부산↔울산 | | | | 부산↔수도권 | | | |
|--------|---------|--------|--------|--------|--------|-------|-------|-------|--------|--------|--------|--------|---------|
| | | 경남→부산 | 부산→경남 | 총이동 | 순이동 | 울산→부산 | 부산→울산 | 총이동 | 순이동 | 수도권→부산 | 부산→수도권 | 총이동 | 순이동 |
| 5~9세 | 17,618 | 674 | 1,234 | 1,908 | -560 | 141 | 208 | 349 | -67 | 469 | 904 | 1,373 | -435 |
| 10~14세 | 21,779 | 683 | 875 | 1,558 | -192 | 113 | 136 | 249 | -23 | 564 | 714 | 1,278 | -150 |
| 15~19세 | 23,175 | 3,048 | 1,454 | 4,502 | 1,594 | 997 | 275 | 1,272 | 722 | 804 | 1,826 | 2,630 | -1,022 |
| 20~24세 | 22,754 | 2,799 | 1,954 | 4,753 | 845 | 679 | 621 | 1,300 | 58 | 496 | 3,762 | 4,258 | -3,266 |
| 25~29세 | 24,041 | 1,175 | 2,718 | 3,893 | -1,543 | 249 | 1,093 | 1,342 | -844 | 668 | 3,406 | 4,074 | -2,738 |
| 30~34세 | 22,694 | 898 | 2,729 | 3,627 | -1,831 | 182 | 720 | 902 | -538 | 783 | 2,290 | 3,073 | -1,507 |
| 35~39세 | 23,342 | 881 | 1,852 | 2,733 | -971 | 170 | 386 | 556 | -216 | 720 | 1,139 | 1,859 | -419 |
| 40~44세 | 26,659 | 713 | 1,229 | 1,942 | -516 | 137 | 189 | 326 | -52 | 458 | 757 | 1,215 | -299 |
| 45~49세 | 30,258 | 489 | 1,048 | 1,537 | -559 | 93 | 146 | 239 | -53 | 313 | 571 | 884 | -258 |
| 50~54세 | 25,073 | 263 | 773 | 1,036 | -510 | 47 | 111 | 158 | -64 | 183 | 339 | 522 | -156 |
| 55~59세 | 19,969 | 147 | 667 | 814 | -520 | 36 | 80 | 116 | -44 | 101 | 230 | 331 | -129 |
| 60~64세 | 15,434 | 115 | 515 | 630 | -400 | 28 | 71 | 99 | -43 | 67 | 215 | 282 | -148 |
| 65~69세 | 12,217 | 119 | 444 | 563 | -325 | 14 | 68 | 82 | -54 | 49 | 172 | 221 | -123 |
| 70세 이상 | 17,923 | 297 | 610 | 907 | -313 | 46 | 119 | 165 | -73 | 153 | 249 | 402 | -96 |
| 계 | 302,936 | 12,301 | 18,102 | 30,403 | -5,801 | 2,932 | 4,223 | 7,155 | -1,291 | 5,828 | 16,574 | 22,402 | -10,746 |

자료: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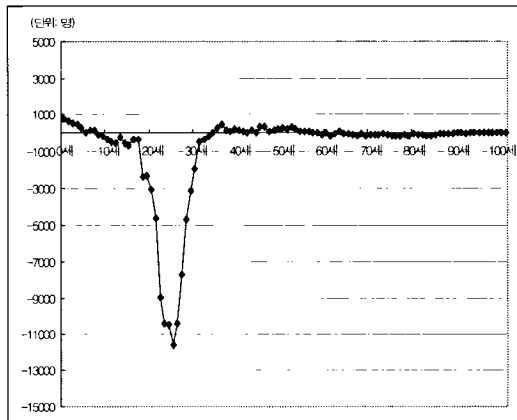
연령대별 인구이동 특성은 부산↔경남과 부산↔울산은 유사하지만, 부산·수도권간 인구이동은 다소 구별된다. 부산·경남과 부산·울산 사이의 인구이동에서는 15~19세와 20~24세 인구만 부산으로 순유입되었고, 그 외의 연령대에서는 부산에서 인구가 순유출되었다. 특히 25~29세와 30~34세 인구의 유출 규모가 크다. 부산·수도권 사이의 인구이동에서는 모든 연령대에서 부산에서 인구가 순유출되는 가운데, 15~34세 인구의 유출 규모가 크다. 수도권으로의 유출은 특히 20대에서 많은데, 전출 인구는 7,168명으로 전입 인구 1,164명에 비해 6,004명이 순유출되어 20대의 학업·취업을 위한 순유출 규모가 상당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15~19세 인구는 경남과 울산에서 부산으로 순유입되었지만, 수도권으로는 전출이 1,826명으로 전입 인구 804명에 비해 1,022명 많은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으로의 전출 초과는 10대 이하의 저연령층에서부터 시작됨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부산의 인구는 울산과 경남, 그리고 수도권으로 순유출되었다. 울산과 경남에서 부산으로 순유입되는 15~19세와 20~24세 인구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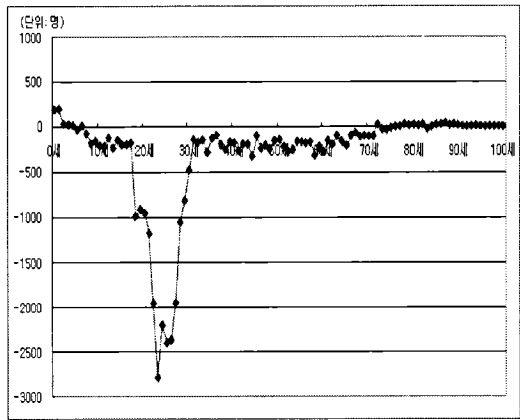
도권으로 순유출되는 인구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부산 대도시권 내부 이동과 수도권의 이동을 함께 고려할 경우, 부산은 모든 연령대에서 인구가 유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¹⁾

(2) 각세별 선택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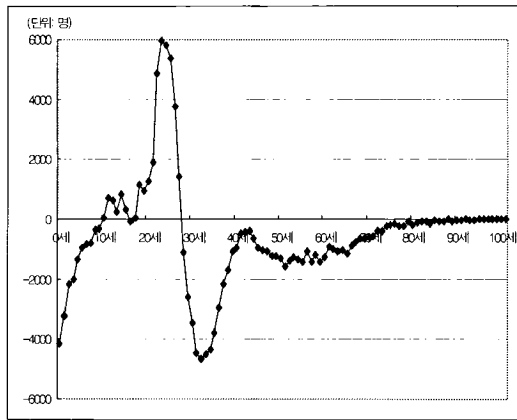
다음으로 인구이동통계 원자료를 통해 2007년 비수도권 전체·부산 대도시권·서울·부산·울산·경남의 각세별 순이동을 살펴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우선, 부산을 포함하는 비수도권의 각세별 순이동을 살펴보면,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은 연령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시작하는 7세 이상에서 인구 유출이 시작되어 학령인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인구 유출이 이루어진다. 학령인구에서 시작된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은 대학진학과 맞물리는 10대 후반부터 20대에서 정점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대학진학, 취업 기회 등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30대 후반의 연령대에서는 순이동이 거의 0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수도권의 인구 유입과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 현상은 모든 연령대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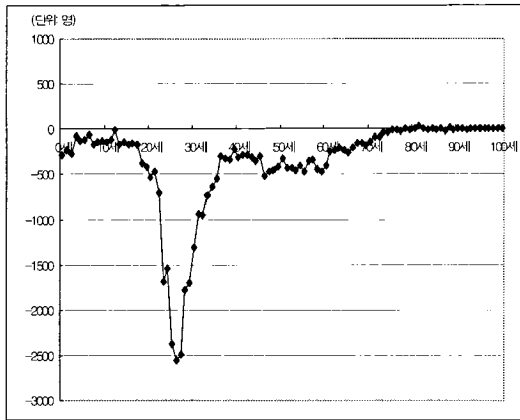
(a) 비수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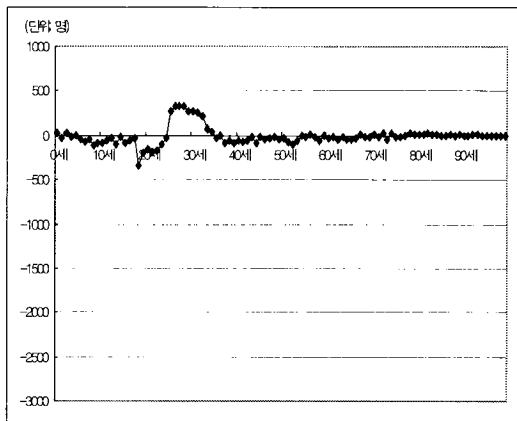
(b) 부산 대도시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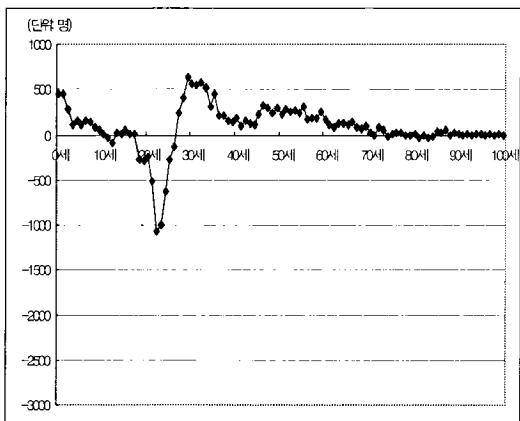
(c) 서울



(d) 부산



(e) 울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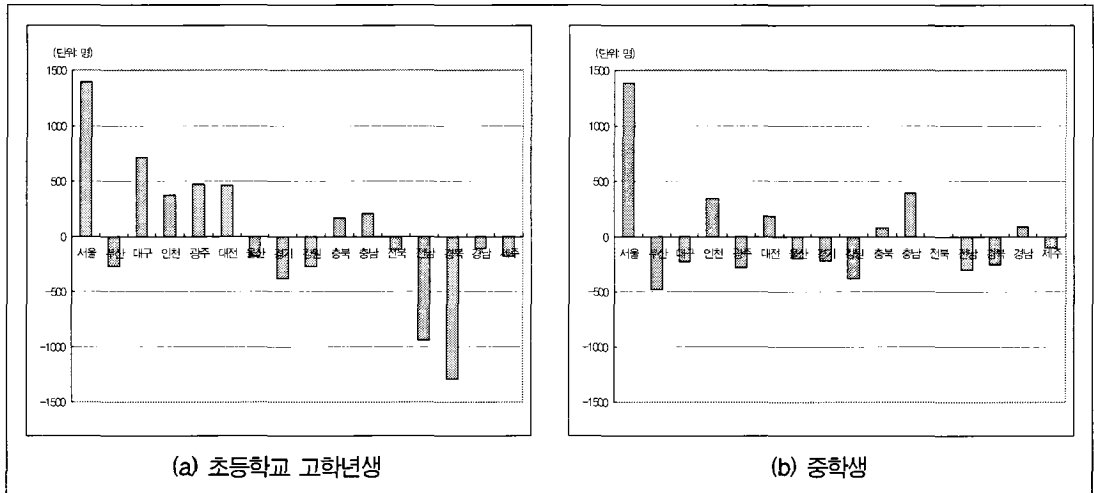


(f) 경남

자료: 통계청, 2007, 인구이동통계.

그림 1. 각세별 순이동(2007)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가동(II) : 이동 가구 특성과 선택성



자료: 통계청, 2007, 인구가동통계.

그림 2. 시도별 학령인구의 순이동(2007)

라기보다는 10대와 20대의 인구 유출로 좁혀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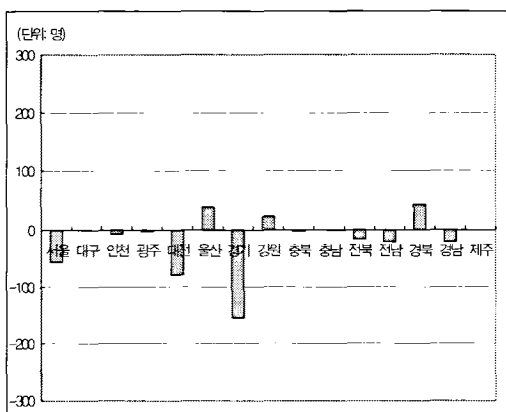
부산 대도시권에서는 인구 유출이 발생하는 연령대가 비수도권 전체에 비해 광범위하다. 7세에서 시작된 인구 유출은 70대까지 지속되는데, 이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인구 유출이 발생하는 부산의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울산과 경남은 부산과 달리 30대 이후의 연령대에서는 인구가 유입되거나 순이동이 거의 0에 가깝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서울과 부산은 인구 유출을 공통으로 겪고 있지만, 서울과 부산의 연령별 인구가동 패턴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서울은 순이동이 2007년 -52,883명으로 전국 시도 중 인구 유출이 가장 많은데, 연령별 특성이 뚜렷하다. 대부분의 연령에서 대규모의 인구 유출이 관찰되는 가운데, 초등학교 고학년 연령대인 10~12세와 중학생인 13~15세, 그리고 20대에서 인구 유입이 뚜렷이 관찰된다. 반면 부산에서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전출 초과가 관찰되는 가운데 10대 학령인구와 20대 인구의 전출 초과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울산은 18세 전후로 진학에 따른 전출 초과가 나타나며, 20대 중반부터 30대 초반까지는 전입 초과가 관찰된다. 경남에서는 20대 이상 연령의 전출 초과와 30대 이상 인구의 전입 초과가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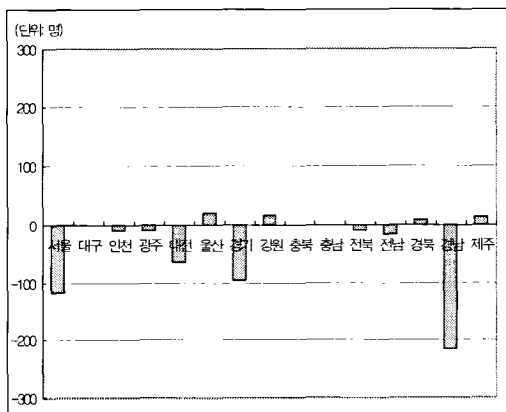
(3) 학령인구별 선택성

10대에서 20대 초반까지의 인구가동은 더 나은 교육여건을 찾아 이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수도권에서 인구 유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고학년(10~12세)과 중학교(13~15세) 연령대의 순이동을 통해 학령인구 이동의 시도별 특성을 살펴보았다(그림 2). 2007년에는 두 연령대에서 모두 서울은 많은 학령인구가 순유입되었으며, 부산·울산은 순유출되었다. 학령인구의 유입이 많은 서울은 물론, 부산·울산 이외의 대도시인 대구·인천·광주·대전에서는 두 연령대 모두에서 인구 유출을 보이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연령대 인구는 초과 유출을, 중학생 연령대 인구는 초과 유입을 보였지만, 그 규모는 작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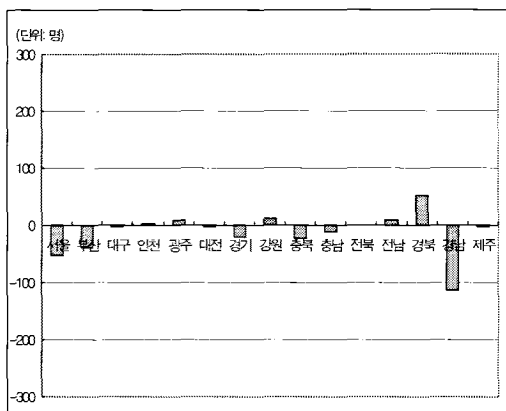
2007년 부산·울산·경남 초등학교 고학년 연령대 인구나 중학생 연령대 인구의 이동 지역을 살펴본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우선 부산의 경우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고학년은 교육 환경이 좋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경기로의 유출 경향이 관찰된다. 울산·경북·강원 등에서는 전입 초과가 나타나는데, 대체로 전출 초과 규모에 비해 작다. 중학생 역시, 서울·경기로의 유출 경향이 나타나는데, 경남으로도 전출 초과가 관찰된다. 울산은 두 연령대 모두 서울·부산·경남으로의 유출 경향이 관찰되며, 유출 인구 규모는 부산에 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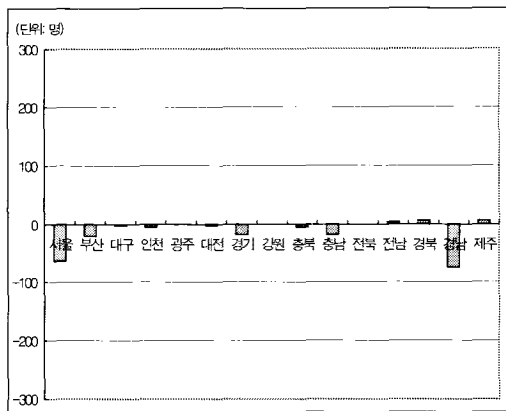
(a) 부산 초등학교 고학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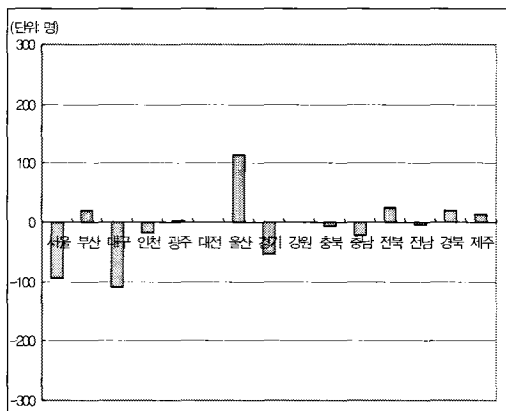
(b) 부산 중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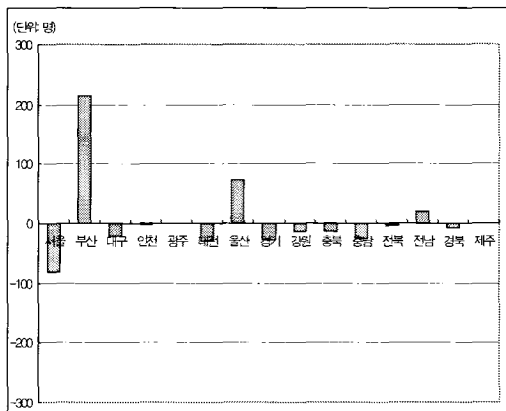
(c) 울산 초등학교 고학년생



(d) 울산 중학생



(e) 경남 초등학교 고학년생



(f) 경남 중학생

자료: 통계청, 2007, 인구가동통계.

그림 3. 부산대도시권의 학령인구별 순이동(2007)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가동(II) : 이동 가구 특성과 선택성

작다. 부산에서는 서울과 함께 경기도도 유출 규모가 큰 것에 비해 울산에서는 경기도의 유출 규모는 작다. 경남은 두 연령대 모두 부산·울산에서는 전입 초과가 나타나는 반면 서울로는 전출 초과가 관찰된다.

2) 학력별 선택성

(1) 재학생과 졸업자의 선택성

지역별 전입·전출 인구의 학력 특성을 재학생과 졸업자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대학교 이상 재학생과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자의 총이동과 순이동 규모가 다른 학력 인구에 비해 크며 구체적인 특성을 다음과 같다. 첫째, 비이동자에 비해 이동자는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 비율이 높다. 졸업자를 대상으로 비

이동 인구나 이동 인구의 고학력자 비율을 비교해 보면, 비이동 인구에서는 그 비율이 20%에 미치지 못하지만, 부산의 전입·전출 인구에서는 그 비율이 더 높다. 특히, 부산과 수도권 간 인구가동에서 부산의 전입·전출 인구의 고학력자 비율은 각각 41.7%와 43.2%로, 부산과 경남·울산간 이동 인구의 고학력자 비율이 20%대인 것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다.

둘째, 부산→경남과 부산→울산의 부산 대도시권 내부의 인구가동에서는 고등학교·대학교의 재학생과 졸업자의 순이동 부호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대학교 이상 재학생은 경남과 울산에서 각각 1,729명, 645명이 부산으로 순유입되었지만, 대학교 이상 졸업자는 각각 1,454명, 576명이 부산에서 순유출되었다. 고등학교 재학생은 경남과 울산에서 각각 678명, 297명이 부산으로 순유입되

표 8. 인구의 이동 유형과 학력(2005)

(단위: 명)

| 구분 | 학력 | 비이동 인구 | 부산→경남 | | | | 부산→울산 | | | | 부산→수도권 | | | |
|------------|---------|-------------------|-----------------|-----------------|------------------|-------------|-----------------|-----------------|-----------------|-------------|-----------------|-----------------|-----------------|-------------|
| | | | 경남→부산 | 부산→경남 | 총이동 | 순이동 | 울산→부산 | 부산→울산 | 총이동 | 순이동 | 수도권→부산 | 부산→수도권 | 총이동 | 순이동 |
| 재학 (휴학) | 초등 | 23,130 (32.5) | 794 (12.5) | 1,300 (28.9) | 2,094 (19.3) | -506 - | 152 (8.7) | 205 (24.0) | 357 (13.8) | -53 - | 493 (23.4) | 1,154 (19.6) | 1,647 (20.6) | -661 - |
| | 중등 | 13,229 (18.6) | 376 (5.9) | 407 (9.1) | 783 (7.2) | -31 - | 62 (3.6) | 61 (7.2) | 123 (4.7) | 1 - | 460 (21.9) | 300 (5.1) | 760 (9.5) | 160 - |
| | 고등 | 18,845 (26.5) | 1,684 (26.4) | 1,006 (22.4) | 2,690 (24.8) | 678 - | 470 (27.0) | 173 (20.3) | 643 (24.8) | 297 - | 558 (26.5) | 787 (13.4) | 1,345 (16.8) | -229 - |
| | 대학교 이상 | 16,026 (22.5) | 3,513 (55.2) | 1,784 (39.7) | 5,297 (48.8) | 1,729 - | 1,059 (60.8) | 414 (48.5) | 1,473 (56.7) | 645 - | 593 (28.2) | 3,653 (62.0) | 4,246 (53.1) | -3,060 - |
| 졸업 | 초졸 미만 | 19,002 (8.2) | 483 (8.1) | 964 (7.1) | 1,447 (7.4) | -481 - | 85 (7.1) | 260 (7.7) | 345 (7.6) | -175 - | 267 (7.2) | 366 (3.4) | 633 (4.4) | -99 - |
| | 초등 | 27,541 (11.9) | 270 (4.6) | 976 (7.2) | 1,246 (6.4) | -706 - | 52 (4.4) | 141 (4.2) | 193 (4.2) | -89 - | 134 (3.6) | 325 (3.0) | 459 (3.2) | -191 - |
| | 중등 | 32,038 (13.8) | 336 (5.7) | 1,204 (8.8) | 1,540 (7.9) | -868 - | 66 (5.6) | 128 (3.8) | 194 (4.3) | -62 - | 172 (4.6) | 388 (3.6) | 560 (3.9) | -216 - |
| | 고등 | 109,381 (47.2) | 3,328 (56.1) | 7,490 (55.1) | 10,818 (55.4) | -4,162 - | 663 (55.8) | 1,942 (57.6) | 2,605 (57.1) | -1,279 - | 1,599 (42.9) | 4,992 (46.7) | 6,591 (45.8) | -3,393 - |
| | 대학교 이상 | 43,744 (18.9) | 1,517 (25.6) | 2,971 (21.8) | 4,488 (23.0) | -1,454 - | 323 (27.2) | 899 (26.7) | 1,222 (26.8) | -576 - | 1,552 (41.7) | 4,609 (43.2) | 6,161 (42.8) | -3,057 - |
| 계 | 302,936 | 12,301 | 18,102 | 30,403 | -5,801 | 2,932 | 4,223 | 7,155 | -1,291 | 5,828 | 16,574 | 22,402 | -10,746 | |

자료: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

주: 중되는 하위 학력의 졸업에 포함하였으며, 4년제 미만 대학은 고졸에 포함함.

었지만, 졸업생은 각각 4,162명, 1,279명이 부산에서 순유출되었다. 부산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남·울산으로의 유출 인구 규모는 대학교 이상 졸업자에 비해서도 크다.

셋째, 부산 대도시권 내부에서의 인구이동에 비해 수도권으로 고학력자의 두뇌유출 규모가 크다. 수도권으로는 대학교 이상 재학생과 졸업자 모두 순유출이 발생하였으며, 그 유출 규모도 재학생 3,060명, 졸업자 3,057명으로 크다. 고등학교 졸업 인구나 대학교 이상 졸업 인구의 규모를 비교해보면, 부산에서 경남으로는 각각 4,162명, 1,454명, 부산에서 울산으로는 각각 1,279명, 576명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월등히 많지만, 부산에서 수도권으로는 각각 3,393명, 3,057명이 유출되어 상대적으로 대학교 이상 졸업자가 많이 유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대학 진학 연령 인구의 선택성

다음으로 부산의 대학 진학 연령 인구의 이동과 사례 고등학교의 대학 진학 현황을 통해 인구의 선택적 이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2007년 12월 31일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대학 진학 연령인 부산의 19~22세 인구는 192,495명인데, 시도별 이동 현황은 <표 9>와 같다. 총이동 규모는 경남(7,006명), 서울(3,654명), 경기(2,011명) 순으로 크며, 대부분의 시도로 전출 초과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과 경기도로의 전출 초과 규모가 각각 1,280명, 579명으로 가장 크다. 서울과 경기도 이외 지역과의 순이동 규모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사례 고등학교의 대학 진학 현황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부산 4개 사례 고등학교의 2008년 시도별 진학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학생들은

표 9. 19~22세 부산 인구의 시도별 이동(2007년)
(단위: 명)

| 구분 | 전입 | 전출 | 총이동 | 순이동 |
|----|-------|--------|--------|--------|
| 서울 | 1,187 | 2,467 | 3,654 | -1,280 |
| 대구 | 276 | 262 | 538 | 14 |
| 인천 | 149 | 234 | 333 | -85 |
| 광주 | 84 | 110 | 194 | -26 |
| 대전 | 108 | 160 | 268 | -52 |
| 울산 | 691 | 675 | 1,366 | 16 |
| 경기 | 716 | 1,295 | 2,011 | -579 |
| 강원 | 124 | 196 | 320 | -72 |
| 충북 | 118 | 152 | 270 | -34 |
| 충남 | 253 | 293 | 546 | -40 |
| 전북 | 110 | 118 | 228 | -8 |
| 전남 | 270 | 249 | 519 | 21 |
| 경북 | 922 | 884 | 1,306 | 38 |
| 경남 | 3,500 | 3,506 | 7,006 | -6 |
| 제주 | 151 | 181 | 332 | -30 |
| 계 | 8,659 | 10,782 | 19,441 | -2,123 |

자료: 통계청, 2007, 인구이동통계.

대부분 부산에 소재한 대학으로 진학하였으며, 서울·울산·경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소재한 대학으로 진학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A고등학교는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고 학군이 좋은 지역에 있는 학교인데, 다른 학교에 비해 서울로의 진학지수가 월등하게 많음을 알 수 있다.

A고등학교의 성적-지역별 대학 진학 현황을 살펴보면, 전교 10등까지 의대 진학을 제외하면 모두 서울로 진학하여, 인구이동의 선택성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1). 이와 같은

표 10. 부산 4개 사례 고등학교의 대학 진학 현황(2008)

(단위: 명)

| 구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합계 |
|-----|----|-----|----|----|----|----|----|----|----|----|----|----|----|----|----|----|-----|
| A고교 | 35 | 212 | 2 | 4 | 3 | 1 | 11 | 1 | 4 | 1 | 1 | 1 | 1 | 2 | 39 | 1 | 319 |
| B고교 | 8 | 181 | 2 | 0 | 2 | 2 | 0 | 4 | 0 | 0 | 3 | 2 | 1 | 8 | 28 | 2 | 243 |
| C고교 | 14 | 337 | 1 | 0 | 0 | 0 | 1 | 1 | 0 | 0 | 0 | 0 | 0 | 7 | 11 | 0 | 372 |
| D고교 | 10 | 230 | 1 | 0 | 0 | 0 | 0 | 4 | 0 | 4 | 3 | 1 | 0 | 5 | 25 | 0 | 283 |

자료: 사례 고등학교 입시 자료, 2008.

표 11. 부산 A고등학교의 대학 진학 현황(2008)

(단위: 명)

| 구 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1~10등 | 7 | 2 | - | - | - | - | - | - | 1 | - | - | - | - | - | - | - |
| 11~20등 | 7 | 2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 21~30등 | 7 | 2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31~40등 | 5 |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1~50등 | 3 | 4 | - | 1 | - | - | - | - | - | - | - | - | - | - | 2 | - |
| 51~100등 | 4 | 31 | - | 2 | - | 1 | - | 1 | 2 | - | 1 | - | - | - | 8 | - |
| 101~150등 | 2 | 32 | 2 | - | - | - | 7 | - | 1 | 1 | - | - | - | - | 5 | - |
| 151~200등 | - | 35 | - | - | 1 | - | 4 | - | - | - | - | - | - | 1 | 8 | 1 |
| 201~250등 | - | 42 | - | - | 1 | - | - | - | - | - | - | - | - | - | 7 | - |
| 250~300등 | - | 42 | - | - | 1 | - | - | - | - | - | - | 1 | 1 | - | 5 | - |
| 301~320등 | - | 15 | - | - | - | - | - | - | - | - | - | - | - | - | 4 | - |
| 합계 | 35 | 212 | 2 | 4 | 3 | 1 | 11 | 1 | 4 | 1 | 1 | 1 | 1 | 2 | 39 | 1 |

자료: A고등학교 입시 자료, 2008.

주: 1~10등에 속하는 학생 가운데 부산, 강원으로 진학한 학생은 모두 의대에 진학한 경우임.

현상은 다른 사립고등학교의 경우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된다.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이상에서 부산 대도시권 인구이동의 특성과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이동 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고, 연령과 학력을 중심으로 부산 대도시권 인구이동의 선택성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 대도시권 이동 가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부산으로 전입하는 가구주의 연령 분포를 보면, 경남·울산·수도권 세 지역 모두에서 35~44세의 가구주 비율이 높다. 반면 부산에서 전출하는 가구주는 세 지역 모두 25~34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으로 전출하는 가구주는 34세 이하가 60% 이상을 점하고 있다. 비이동 가구에 비해 이동 가구의 가구주 학력이 높다. 대학 이상 졸업의 고학력 가구주 비율은 비이동 가구에서는 20% 미만이지만, 부산과 경남·울산 사이의 이동 가구에서는 20~30%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부산과 수도권 사이의 이동 가구는 고학력 가구주 비율이 50%에 가까울 정도로 높다. 비이동 가구와 이동 가구의 가구원수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비이동 가구는 4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지만, 부산의 전출입 가구에서는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다. 특히 수도권으로 전출하는 가구는 1인 가구의 비율이 44.8%에 달한다. 비이동 가구는 이동 가구에 비해 자가 거주 비율이 59.7%로 높고, 이동 가구 가운데 부산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가구의 자가 거주 비율은 13.0%로 특히 낮다.

둘째, 부산 대도시권 인구이동의 연령별 선택성은 다음과 같다. 부산 대도시권 내부의 울산과 경남에서는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와 대학교로의 진학과 관련 15~24세 인구가 순유입되었지만, 수도권으로 순유출되는 인구 규모가 커서, 부산 대도시권 내부 이동과 수도권의 이동을 함께 고려할 경우, 부산은 모든 연령대에서 인구가 유출되었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은 7세 이상에서 시작되어 대학 진학에 이르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까지가 정점을 이루고, 30대 후반에 이르면 순이동이 거의 0에 가까워진다. 부산 대도시권에서 인구 유출이 발생하는 연령대는 7세에서 70대까지로, 비수도권 전체에 비해서도 광범위한데, 이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인구 유출이 발생하는 부산의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부산과 마찬가지로 인구 유출을 겪는 서울에서는 10대와 20

대에서 인구 유입이 뚜렷이 관찰되는 것과 달리, 부산에서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전출 초과가 관찰되는 가운데 10대와 20대의 전출 초과 규모가 크다. 학령인구의 이동 패턴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고학년 연령대인 10~12세와 중학생인 13~15세 모두에서 서울은 순유입되었으며, 부산·울산은 순유출되었다.

셋째, 부산 대도시권 인구가동의 학력별 선택성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전입·전출 인구의 학력 특성을 재학생과 졸업자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이동자는 비이동자에 비해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부산과 수도권 간 인구가동에서 부산의 전입·전출 인구의 고학력자 비율은 각각 41.7%와 43.2%로 월등히 높다. 부산→경남과 부산→울산의 부산 대도시권 내부의 인구가동에서는 고등학교·대학교의 재학생과 졸업자의 순이동 부호가 정반대이다. 재학생은 경남과 울산에서 순유입되었지만, 졸업자는 부산에서 순유출되었다. 부산 대도시권 내부에서의 인구가동에 비해 수도권으로 고학력자의 두뇌유출 규모가 크다. 수도권으로는 대학교 이상 재학생과 졸업자 모두 순유출이 발생하였으며, 그 유출 규모도 재학생 3,060명, 졸업자 3,057명으로 크다. 부산 4개 사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학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의대에 진학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대부분 서울로 진학하여, 인구가동의 선택성이 뚜렷함을 볼 수 있다. 고등교육을 받았거나 고등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부산대도시권에서 수도권으로의 두뇌유출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산의 인구 감소는 대도시의 광역화라는 우리나라 대도시의 인구 변화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구동회, 2007; 최은영 등, 2009). 대체로 우리나라 대도시들에서의 전출 인구는 수도권으로 이동하거나 각 중심도시의 주변지역으로 이동한다. 마찬가지로 부산에서의 전출 인기도 수도권으로 이동하거나 부산의 주변지역으로 이동한다. 부산은 수도권으로 인구가 가장 많이 유출되고 있는 지역이며, 부산의 전출 초과에서 수도권의 영향력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서울은 전국으로부터 인구와

기능을 흡인하여 다시 중심도시 주변의 수도권으로 배출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미 인구와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된 수도권은 더욱더 과밀해져 가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강화하는 국토 개발 방향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방향과 배치되며, 결국에는 수도권의 과밀화, 비수도권의 과소화라는 이중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중앙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가 아니라 전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정부와 주민이 스스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부산은 양과 질의 인구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다. 양적으로 부산의 인구가 과도하게 유출되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인구의 질적 문제이다. 즉, 젊은 고학력 인구들이 선택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 부산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부산은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전출 초과 현상을 보이고 있고, 특히 10대 학령인구와 20대 인구의 전출 초과 규모가 매우 크다. 부산 인구 가운데 젊은 층의 인구가 교육 기회 및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선택적 이동은 고령화의 속도를 가속해 부산을 늙은 도시로 만들고 있다. 그러므로 젊은 인구 및 고학력 인구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젊은 인구와 고학력 인구를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회귀이주(return migration)해 올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수도권과 부산 사이의 교육 기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부산시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부산지역 대학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

- 1) 부산 대도시권 내부에서 15~19세와 20~24세 인구가 다른 연령대와 달리 부산으로 순전입하는 이유는 뒤에 나오는 학력별 선택성 중 재학생과 졸업자의 인구가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이는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와 대학교로의 진학과 관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헌

- 구동회, 2007, 부산권 인구이동의 공간적 패턴에 관한 연구, *대한지리학회지*, 42(6), 930-939.
- 권상철, 2003, 인구이동과 인적자원 유출: 제주지역 유출 유입 인구의 속성 비교, *한국도시지리학회지*, 6(2), 59-73.
- 옥양련·류영달, 1994, 부산시민의 인구이동 특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21, 201-220.
- 이희연, 2003, 인구학: 인구의 지리학적 이해, 범문사.
- 임정덕·장영재, 1997, 지역 우수두뇌의 유출현상과 지역균형발전, *노동경제논집*, 20(1), 91-115.
- 최은영·구동회·박영실, 2009, 부산 대도시권의 인구이동(I): 인구구조와 인구이동,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5), 572-589.
- 최은영·조대현, 2005, 서울 내부 인구이동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1(2), 169-186.
- Clarke, J. I., 1965, *Population Geography*, Pergamon Press.
- Foulkes, M. and Newbold, K. B., 2000, Migration propensities, patterns, and the role of human capital: comparing Mexican, Cuban, and Puerto Rican interstate migration, 1985-1990, *Professional Geographers*, 52(1), 133-145.
- Hansen, S. B., 2003, Explaining the "Brain Drain" from Older Industrial Cities: The Pittsburgh Region,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17(2), 132-147.
- Hornby, W. F. and Melvyn, J., 1980, *An Introduction to Population Geogra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eters, G. L. and Larkin, R. P., 2002, *Population Geography: Problems, Concepts and Prospects (7th)*, Dubuque.
- Rogers, A., Raymer, J. and Willekens, F., 2002, Capturing the age and spatial structures of migration, *Environment and Planning A*, 34(2), 341-359.
- Savage, M., 1988, The missing link? The relationship between spatial mobility and social mobility,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39(4), 554-577.
- US Census Bureau, 2003, Migration of the young, single, and college educated: 1995 to 2000, *Census 2000 Special Reports*, 1-11.
- 교신: 구동회, 609-735,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30번지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부교수(donghoe@pusan.ac.kr, 전화: 051-510-2657, 팩스: 051-582-8658)
- Correspondence: Donghoe Koo,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30 Jangjeon-dong, Geumjeong-gu, Pusan 609-735, KOREA(donghoe@pusan.ac.kr, Tel: +82-51-510-2657, Fax: +82-51-582-8658)

(접수: 2010.1.4, 수정: 2010.2.1, 채택: 2010.3.8)